

“긴 연휴 떠나는 나들이객 RV·전기차 수요 몰려”

중고차 플랫폼 ‘첫차’ 10월 시세 전망

수입차 시장 테슬라 모델 Y·모델 3 상승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

국산 셀토스·쏘렌토·팔리세이드 강세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2025년 10월 국산·수입 인기 중고차 모델 20종에 대한 시세 전망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초의 높은 차량 이용 수

요와 연휴 이후 활발해질 내차팔기 활동이 반영되며 국산 RV (Recreational Vehicle·레저용 차량)와 전기차 중심의 시세 상승세와 수입 세단의 약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전망은 첫차 플랫폼의 2025년 9월 중고차 실거래 데이터 중 2022년 출고된 주행거리 10만 km 이하의 매물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국산 중고차 시장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이동과 레저 수요가 증가하며 RV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세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아 셀토스 1.6 터보 2WD 시그니처는 평균 2천79만원으로 전월 대비 0.7% 상승하며 판매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쏘렌토 4세대 (MQ4) HEV 1.6 2WD 프레스티지 (5인승) 역시 평균 3천147만원으로 0.9% 상승, 현대 더 뉴 팔리세이드 가솔린 3.8 2WD 켈리그래피는 평균 4천137만원으로 3.6% 상승하며 상위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현대 올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 (CN7) 인스퍼레이션은 평균 2천168만원으로 전월 대비 3.8% 하락하며 연휴 전 구매 수요 감소와 세단 선호도 약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중고차 시장에서는 전기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테슬라 모델 Y (평균 5천245만원, 전월 대비 +5.2%)와 모델 3 (평균 4천59만원, +7.1%)의 시세

상승은 한국 신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높은 판매량과 강한 브랜드 선호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상위권을 유지하며 첫차 플랫폼의 주 이용층인 20~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모델 Y는 SUV 선호 트렌드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하며 시세 방어력을 보여줬다.

신차 대비 가격 경쟁력 (모델 Y 신차대비 -53%, 모델 3 -48%) 또한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의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수입 세단은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BMW 5시리즈 7세대 520i M 스포츠는 평균 4천460만원으로 전월 대비 0.7% 하락, 벤츠 E-클래스 5세대 E350 4MATIC AMG Line은 평균 4,978만원으로 0.5% 상승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인다.

첫차 관계자는 “10월 중고차 시장은 RV와 전기차 중심의 수요가 강세를 보이며 시세 상승이 두드러지고 세단은 일부 모델에서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며 “10월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기인 만큼 실시간 시세 확인과 적절한 구매·판매 타이밍 전략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임채만 기자



허수아비 사이로 가을걷이 1일 오전 순천시 별량면 들녘에 조성된 유색벼 논아트에서 수백개의 허수아비 사이로 별량면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낫질을 하며 추수를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광주경총, 미래 성장 동력 창출 핵심기관 ‘우뚝’

양진석 회장 취임 2주년 맞아

회원사 급증·현안 해결 앞장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양진석 회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양 회장 취임 이후 정회원사가 기존 300개사에서 현재 882개사로 3배 가량 급증한 것은 광주경총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뜨거운 신뢰와 기대를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광주경총은 지식과 네트워크의 허브, ‘금요조찬포럼’으로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지역 기업 CEO와 기관장,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포럼은 단순한 교류의 장을 넘어 최신 경영 트렌드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 플랫폼이 됐다.

지역 현안인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광주경총은 시의 주력 산업인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기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다해 왔다.

광주경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청년 고용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등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대학들과 잇따라 ‘우수 인재 양성 및 청년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광주경총은 지자체와 유관기관들과 함께 공조하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그 결과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담보할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첨단 산업 허브의 기틀을 마련했다. /임채만 기자

aT, 올해 K-푸드 수출 100억달러 넘었다

역대 최단 기록...식품영도 확장 가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일 “지난달 29일 2025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 수출이 9월 중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대 최초이며 이는 전년도 달성 시점인 10월17일보다 18일 단축된 최단 기간 기록이다.

주요 수출국 중에서는 통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17억2천400만달러가 수출되며 전년 대비 15.3% 증가율을 기록, 1위 수출국 자리를 공고히 지켰다. 유럽(15.8% ↑, 7억7천200만달러), GCC(9.6% ↑, 2억9천600만달러), CIS(5.6% ↑, 4억6천100만달러) 등 유망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K-푸드의 수출 잠재력을 입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럽 등에서 매운맛 인기가 이어지며 라면(24.7% ↑, 11억1천600만달러)과 김치(3.2% ↑, 1억2천500만달러) 수출이 증가했다. 글로벌 건강 지향 트렌드 확산에 따라 김(14.1% ↑, 8억7천700만달러), 포도(45.2% ↑, 3천500만달러) 수출도 크게 늘었다.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 곳곳에 한식당이 확산되며 한국산 소스류(9.2% ↑, 3억1천500만달러)의 수요도 증가했다.

정부와 aT는 연초부터 수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업체 애로해소 밀착지원 ▲시장별 맞춤형 전략품목 육성 ▲한류 트렌드와 연계한 마케팅 강화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해 K-푸드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조기에 이끌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수출정보데스크는 업체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1:1 전문가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또한 수출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운영·시설자금과 국제 운송비용을 지원하고, 환원동보환 자부담률을 완화하는 등 수출업체의 재정적 부담 경감에도 힘썼다.

홍문표 aT 사장은 “품목별·국가별 맞춤전략 개발을 통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지난해 12.9억달러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태호 기자

광주은행 ‘제9회 광주화루 공모전’...23-30일 온라인 접수

광주은행은 전국 한국화 작가를 대상으로 ‘제9회 광주화루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광주화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화 공모전으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광주화루 홈페이지(hwaru.kjbank.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심사는 ▲1차 포트폴리오 심사 ▲2차 작품심사 ▲3차 심층면접의 3단계를 거쳐 대상 1명(상

금 3천만원), 최우수상 1명(상금 2천만원), 우수상 3명(상금 각 1천만원), 입상 5명(상금 각 200만원)을 선정해 총 10명에게 9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내년 상반기 광주은행 아트홀에서 열리는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을 통해 전시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예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만 기자

